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대학·지역별 선발 정원 확정

제주대 의대 내년 28명 첫 선발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대학·지역별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있는 제주대학교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모두 28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확정할 때 이어 세부기준까지 마련되면서 '지역의사' 양성 기반이 갖춰졌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다.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대학에서 의사를 키우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이하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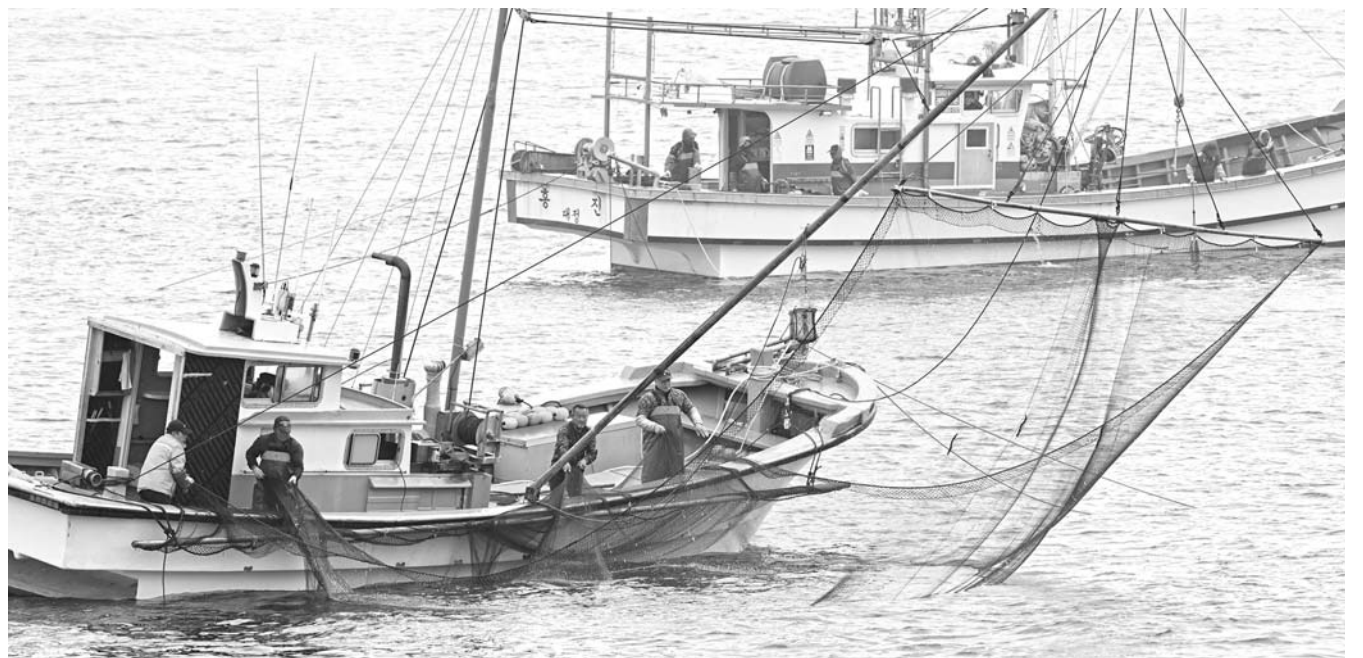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국적으로 그 인원이 490명에 달하며 이 중 28명은 '제주대학교' 몫으로 배정됐다.

제주대의 선발 인원은 진료권 19명, 광역권 9명이다. 진료권은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뉘었으며 각각 11명, 8명을 선발한다. 이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 진료권으로 선발된 학생은 서귀포시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권별 세부 선발 비율은 지역의 인구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전형 정원 규모가 더 늘어난다. 전국적인 선발 인원은 총 613명으로, 제주대는 기존보다 7명 늘어난 35명을 해당 전형으로 뽑는다.

제주대가 지난달 30일 대학 누리집에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도 지역의사전형이 반영됐다. 제주대는 같은 연도 대입에서 의대 신입생 전체 75명 중 35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인데, 수시 모집 24명(학생부교과 22명·학생부종합 2명), 정시 모집 11명으로 예고됐다.

여기에 '지역인재'(지역인재 16명·지역인재교과 2명) 전형까지 포함하면 도내 고등학교(지역의사전형은 중학교 포함)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선발 인원은 2028학년도 기준 53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제주대 의대 입학 정원의 70% 이상으로, 의대 입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제주 출신'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일반고의 의대 합격 인원 역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은기자



가파도 해상 자리돔잡이 지난 1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이용해 자리돔을 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확정 권리당원 투표 통해 1~13 순위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확정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1순위는 민주당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은 후보가 차지했다. 이어 2순위 임혜주 후보, 3순위 정다운 후보, 4순위 고석준

후보, 5순위 장희순 후보, 6순위 오경남 후보, 7순위 강영아 후보, 8순위 임찬기 후보, 9순위 허보양 후보, 10순위 이현철 후보, 11순위 문영희 후보, 12순위 강인철 후보, 13순위 오신정 후보가 차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고, 또 매 출수 순번에는 여성을 배정해야 한다.

이번 순위투표는 지난달 29-30일 권리당원들이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 중 성별 구별 없이 총 2명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법에 따라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할당받으며, 정당은 미리 정해진 명부순번대로 의석을 차례로 배정한다.

단,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1개 정당은 3분의2 이상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8개다. 이상민기자

“덩굴류 조기 제거로 산림 경관 개선”

제주시, 연북로·애조로 30km 구간 1차 정비 완료

제주시가 주요 도로변 '골칫덩이'인 침 등 덩굴류에 대한 조기 제거로 산림경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시는 생활권 주변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덩굴류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는 '조기 정비 체계'를 기반으로 최근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덩굴식물은 강한 번식력으로 수목의 생장을 저해하고 산림 생태계와 도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의 생장기 집중 정비에서 벗어나 '조기 정비체계'를 도입했다. 봄철 이전에 뿌리와 줄기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덩굴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중점 관리구역은 연북로와 애조로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연북로 10km, 애조로 20km 등 총 30km 구간에 대해 덩굴 제거 1차 사업을 추진했다.

백궁타기자 haru@ihalla.com

7-8일 제27회 국제섬관광정책 포럼 실무회의

전세계 섬 지역 관광 정책 담당자들이 제주에 모여 국제 협력과 주요 관광 의제를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2026 국제섬관광정책 포럼(ITOP)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10개 회원지역 중 제주를 포함해 8개 지역 실무자 15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키나와, 탄자니아 잔지바르, 태국 푸켓, 말레이시아 페낭, 스리랑카 남부주, 필리핀 세부 등이 직접 참석

하며 중국 하이난과 미국 하와이는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28-3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7회 ITOP 포럼 개최 계획과 'ITOP 2.0 비전'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지속 가능한 관광 주요 정책 및 사례, 회원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논의된다. 오소범기자

선택 6-3 / 제주지방선거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당·이름 가나다 순>

정민구 민주당 예비후보 "스마트안전통학로 구축"



제주자치도의원선거 정민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30일 "어린이가 안전한 동네가 곧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라며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챙겨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삼도동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영석기자

윤용팔 국민의힘 예비후보 "노인복지 4대 공약" 제시



제주자치도의원선거 윤용팔 예비후보(국민의힘, 삼도1·2동)는 지역 노년회 분회를 잇따라 방문, 어르신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 복지 맞춤형 4대 공약'을 3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높은 고령화율과 노후 주거 환경을 언급하며 ▷보호권 보장을 위한 '실버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삼도동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영석기자

이남근 국민의힘 예비후보 "인력난·생산비 문제 풀것"



제주자치도의원선거 이남근 예비후보(국민의힘, 한림읍)는 농업 인력난과 생산비 부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3일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손 부족과 계속 오르는 생산비"라며 이를 위해 농작업 대행 조직을 확대하고 농업인력 중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위영석기자

Advertisement for '무병묘' (disease-free seedlings) and '포트묘' (pot seedlings) by Purnji Geomwon Nongjang. Includes details about 2025 and 2026 seedling order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010-4450-4316).

Advertisement for '다인쿨고리' (Dain Cool Hook) for hanging melon. Features a diagram of the hook system and a list of 5 benefits, such as saving time and labor.